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

배 포 일	2022. 10. 25.(화)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매수 : 4 매
담당	강원학연구센터	집필자	유영심 부연구위원 T. 033-250-1387 E. yysimi@rig.re.kr

강원연구원 정책특토 제4호 발간

강원도는 누구인가? 강원도교육 통해 정체성 찾고 통합 이루자

- 강원연구원은 현진권 원장 취임 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체계적인 논리개발 및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기조에 적합한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10월부터 “정책특토”을 새롭게 발간하고 있다.
- 정책특토 제4호는 유영심 강원학연구센터 부센터장이 “강원도는 누구인가? 강원도 교육 통해 정체성 찾고 통합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공동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지역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성을 토대로 한 성장모델 발굴 및 지원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지역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지역학교육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최근 대학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지역학 교과목을 개설하는가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와 지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순 교육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토대 제공과 지역재생의 실천적 원동력 제공으로 새로운 창의인력 육성 등 교육과 체험이 체계화·전문화 되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유영심 부센터장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 100년 대계를 구상하는 작금에서 도민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학 교육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학제간·지역간 융합과 협업을 통해 문화도로서의 위상 강화와 강원도 대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의 첫걸음이 지역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음” 을 제안하였다.
-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rig.re.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붙임

정책특특 4호 ‘강원도는 누구인가? 강원도교육 통해
정체성 찾고 통합이루자’

Vol. 2022-04
2022. 10. 25.

정책특특

“ 강원도는 누구인가?
강원도교육 통해 정체성 찾고 통합이루자 ”

유영심
정지연



강원연구원

2022 - 04호

강원도는 누구인가? 강원도교육 통해 정체성 찾고 통합이루자

디지털 시대의 가파른 속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등 대내외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공동체 위해 및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속에서 지역 정체성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성을 토대로 한 성장 모델 발굴 및 지원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지역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학은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의 기본 토대로서 '지역 정체성 정립이 지역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만·관·산학의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학이 단순 학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최근 지역학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지역학 교과목을 개설하는가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와 지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순 교육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 제공과 지역재생의 실천적 원동력 제공으로 새로운 창의인력 육성 등 교육과 체험이 체계화·전문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 100년 대계를 구상하는 작금에서 도민이 지역에 대한 애항심과 지역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학 교육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학제간·지역 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문화 도로써의 위상 강화와 강원도 대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정책특목'

국내 주요정책 추진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 수용전략 제언을 목적으로 매주 발간.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특목」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심 T. 033.250.1387(yysimi@rig.re.kr)

정지연 T. 033.250.2980(bshop@rig.re.kr)